

오늘의 날씨와 생활12월 15일 목요일 음 11월 22일 (1물)

기상정보



4~11℃
파고 1.0~2.5m
파고 1.0~2.5m
파고 1.0~2.0m
5~11℃
2~10℃
3~12℃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10~12℃로 전망된다. 기온이 낮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30%	고 산	10%
2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한때 비 6/7℃

모레 흐리고 눈비 4/7℃

월드뉴스

태국, 월드컵 도박 성행... 1만명 체포

도박 규모 2조 1000억 추산
경찰, TF 구성해 집중 단속

월드컵 도박이 성행하는 태국에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 도박범을 1만 명 넘게 체포했다.

14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1만644명을 도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도박판 운영자 90명과 도박에 참여한 9000여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28명과 참여자 743명 등이다. 온라인 도박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10명도 포함됐다.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은 태국인들의 카타르 월드컵 도박 액수가 572억 бат(2조1421억원) 규모



카타르 월드컵 온라인 도박 조직 집중 단속하는 태국 경찰.

라고 추산했다.

경찰 기술범죄단속국(TCSD)은 카타르 월드컵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13개 장소를 급습, 5명을 체포하고 10억 бат(375억원) 이상의 현금 등 자산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유통된 금액이 약 30억 бат(1124억원)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과 경마 외에 도박은 불법이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양 상 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간을 구성한다. 그 공간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기반 시설과 건축물들이 채워져 도시가 됐다. 도시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 삶의 흔적을 남겨 놓는다. 이렇듯 건축은 우리의 생활이 담긴 그릇과 같은 것으로,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는 우리 시대 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적 소유물인 동시에 공적 가치를 지녀 우리 사회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다. 건축의 구성 3요소로 기능(Function), 구조

제주다운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보며

(Structure)와 함께 아름다움(Beauty)을 포함한다. 건축의 본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술적인 전개와 함께 예술적 감흥을 가진 창조성에 의미를 둔다. 여타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건축행위도 건축물이라는 예술품을 통해 보편적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창조활동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미술관에 미술품이 있듯이, 도시는 도처에 예술품으로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예술은 풍토에 따라 특성을 달리한다. 건축도 지역과 민족마다 미적 차별성을 가지고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제주의 건축도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에 영향받아 차별성을 드러낸다.

지난주 저지예술인 마을에 ‘이타미 준 뮤지엄’(유동룡미술관)이 개관됐다. 연 면적 약 675㎡ 규모

로 3개의 전시실과 라이브러리 교 육실, 아트 숭과 티 라운지 등을 갖췄다. 유동룡(庚東龍, 1937~2011)은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나 평생 한국 국적을 유지해 자신만의 한국성을 표현했던 건축가다.

그는 장소의 고유한 풍토, 지역성을 살려 인간의 삶에 어우러지는 건축을 추구했다. 특히 디아스포라(Diaspora) 건축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제주에서 건축혼을 불태우며 제주 풍경과 어울리는 ‘포도호텔’, ‘수(水)·풍(風)·석(石) 미술관’, ‘방주교회’ 등 대표작을 남겼다. 그의 예명 이타미 준은 일본에서 건축 연구소를 설립할 당시 자신의 성(姓)인 ‘유(庾)’가 일본 활자에 없어 사업상 불편을 겪자, 생애 처음 이용한 공방 이름 ‘이타미’와 절친

음악가 김옥윤의 ‘윤(潤)’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그의 건축은 프랑스 예술 문화훈장인 슈발리에, 김수근 문화상, 일본 무라노 도고상을 수상했고, 서예, 조각, 회화 같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그의 독창성을 읽어 볼 수 있다.

제주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담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근자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무적의 건축물이 양산됨으로써 제주 건축이 제주 답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특별한 섬 제주는 건축이 자연친화적이며 예술적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적 정체성을 찾는 일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유동룡미술관 개관이 제주 건축의 제주성, ‘제주다운 건축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열린마당

“제주형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홍 주 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주무관

제주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또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필자는 양질의 여러 정책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과 함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크게 추진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임금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다. 일자리 사업 간 비교는 차치하고서라도 공공

다시 뛰는 장년층, 희망의 디딤돌



백 은 숙

제주도 노인장수복지과

제주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장년층은 50세부터 64세까지로 돼 있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도내 장년층은 도인구대비 24.8%로 가장 큰 인구규모를 차지한다. 35~49세까지가 22.6%, 19~34세 청년이 18.1% 순이다. 반면, 제주도 내 장년층과 노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장년층은 이전에 비해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세대이다. 이들도 퇴직을 하거

나 실직 또는 질병 등 사회활동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경륜과 전문성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사회참여 활성화 및 소득 안정화 도모,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161억 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생 2막 장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 개발·보급·관리 등을 위한 장년층 전문 지원 기관 운영하여, 장년층의 길어진 노후생활 보장과 빈곤층 전락의 사전 예방은 물론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전부터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시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지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목을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홍진 / 하갈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계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갈(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까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번이지) 1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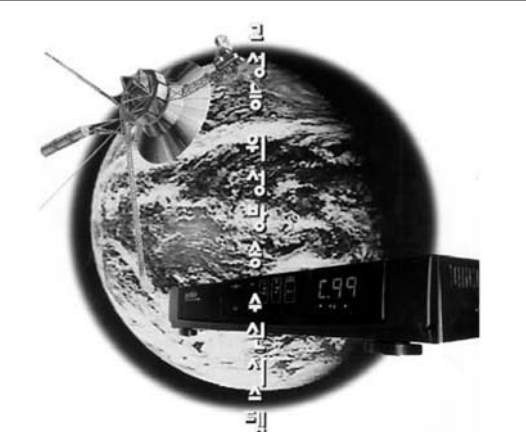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감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